



드론축구 공식 대회



백제대로 첫 마중길 조성



전주국제영화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민 선6기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 동시에, 전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묵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여행사 '론리 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했고 FIFA U-20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성공리에 치러내는 등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전주시가 쉽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을 점검해본다.

묵은 현안 해결책 마련 ·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 기반 구축

▲사람을 우선하는 복지

사람중심의 전주형 복지정책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아내고 보살피는 '동네복지'로 대표된다. 동네복지는 현재 전주시 33개 모든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결재사업이자 시민들과 함께 치러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밥을 배달해 왔다.

또한 마음의 양식을 채울 도시를 지원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도 전개했다.

시는 '말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는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을 전개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췄다.

특히, 시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시민을 울리는 (주)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또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구제하고,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 등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했으며, 금융복지상담소 운영과 부실채권 매입·소각 등 금융복지 정책도 전개했다.

이밖에, 생활임금제 도입,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여름철 그늘막 설치, 장애인 일자리형 카페 '팝앤카페' 개소, 인권도시 프로젝트, 성매매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선미촌 문화재생 등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정책들을 펼쳐왔다.

▲콘크리트 보다 녹색생태도시

전주시는 고층아파트로 겹겹이 둘러싸인 콘크리트도시에서 녹색생태도시, 자동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로의 변화도 꾀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로 가득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

상을 심어주고, 침체된 역사권 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첫마중길로 탈바꿈했다. 첫마중길 조성으로 기존 직선도로로 S자형 곡선도로로 바꿨다.

또한, 객사 앞 총경로에서는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팔달로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통합하는 도로비우기 사업을 전개하는 등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주를 녹음이 우거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권 곳곳에 나무를 심는 운동 숲 프로젝트도 전개하고, 신도시 개발로 침체일로에 있던 아중지구 일대에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세계로 향하는 전주 전문문화

전주시는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명소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됐으며, 전주한옥마을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국제슬로시티도 도시 전역으로 확대·재인증됐다.

나아가, 지난 FIFA U-20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하는 등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냈으며, 전주국제영화제는 블랙리스트 정국 속에서도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제작을 지원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며 대한민

사람 우선 복지사업 전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백제대로, 첫 마중길로 탈바꿈
U-20 월드컵 · 국제영화제 등
큰 행사 성공적으로 치러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전개
'다울마당' 시민 행정참여 확대

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밖에, 시는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기 위해 서화동예술촌 일대 약 20만6000㎡를 대상으로 미래유산 마을재생 사업에 착수했으며, 전통한지 제조시설 구축 추진, 투브르박물관의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 사용 등 전주한지의 계승·발전과 세계화에도 힘써왔다.

▲선순환 지역경제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도시를 만드는 데도 집중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도해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의 경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면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시는 묵묵히 전주의 경제를 지켜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성장을 돕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경쟁력을 지닌 독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했다.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축구 등을 통해 드론 산업과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VR.AR(가상·증강현실) 등 미래먹거리산업

도 육성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먹거리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대도시 먹거리 전략인 '전주푸드 플랜'을 통해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보다 안정된 판로망을 제공해왔다.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도민 자존감 회복, 호남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온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전주시는 시민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시청은 시민들의 삶 결로 나가는 정책도 펼쳤다.

대표적으로, 시는 주요현안과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언론,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다울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다울마당은 현재 전라감영, 생태동물원, 전주아이숲, 아중호반도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등 2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시민들의 시장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다울마당보다 확대된 개념의 전주시민원탁회의도 열었다. 시민원탁회의는 다울마당과 달리 주제 선정부터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한다.

반대로, 시청은 현장시청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

이는 '시청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시는 제호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사무소, 푸드지원사무소 등을 현장으로 내보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제6호 현장시청인 서노송 예술촌사무소도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인재용 기자

인터뷰 · 김승수 시장



"문화특별시에 맞는 정책 추진할 것"

"문화강국의 꿈, 전주가 앞장서서 이뤄내겠습니다!"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실 없이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시장을 펼쳐온 김승수 시장은 "문화는 우리는 물론 후손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밥입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고 대한민국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주가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전주가 갈 길을 물었다"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약자를 위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김 시장은 오랫동안 묵혀 있던 시내버스 파업문제, 항공대대 이전, 교도소 이전, 전라감영 복원 등 현안들을 풀어나갔다.

또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동네복지 등 사회적 약자들도 소외받지 않은 전주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정의로운 일이라 면 그 어떤 권력과 자본 앞에서도 당당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국 속에서도 제작비를 지원한 다큐영화 '노무현입니다'는 물론 '자백', '파란나비효과' 등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상영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

김 시장은 "앞으로 문화의 힘을 토대로 부강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고, 그 위상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따뜻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3년 전의 그 마음으로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기금 조성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